

社 說

철저한 수사와 책임추궁 선행돼야
— 관권 개입 선거를 규탄한다

내무부의 높은 관리가 그렇게도 외쳐대던 것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며 전혀 없을 것이라던 관권선거가 드러나고 있다.

지난 8월 31일 총남 선거군 군수를 지낸 한중 수석의 윤기상은 당선선언은 그대로 '실마'하면 국민의 기대처럼 완전히 저버리게 만든 사건이었다. 누구보다도 공정해야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직자들이 그것도 조직적으로 집권후 후보 당선에 위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은 비리나 부정부패의 차이를 넘어선 중대한 문제이다. 특히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있고, 여야간에 단체장 선거실시 등을 놓고 격전을 벌이는 때에 이런 당선선언은 일파만파의 충격을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깨끗해야 할 공직자들의 비리나 부정부패에 대해 오늘날의 일은 아니다. 해마다 터지는 뇌물수수사건, 고위공직자를 이용한 사기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었다. 선거때에도 공무원들에게 허탈한 '선거지침'들이 폭로되기도 했지만, 이번과 같이 선거자금으로 쓰인 수표, 공무원 배려로, 독점예산보고서등의 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난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선거개입이 결코 군수나 통·향장의 해태기성 총상과도 안기부류 특색유일한 실상과 이치론 중립의 군부재자 투표

그러나, 이 사건의 수사를 맡은 경찰의 태도는 결론전 총재의 '형제자고도 의혹있는 수사' 지시 방침에도 불구하고 진상이 가려지게 될 지 미지수이다. 지난 14대 총선 당시에 안기부류 특색유일한 실상과 이치론 중립의 군부재자 투표

불신과 반목의 벽 허문 한마당
— 교수·학생 등반대회에 부쳐

지난 5일 '교수·학생 등반대회'가 열렸다.

거고적인 차원에서 총학생회가 제안하고 전체 학과의 교수·학생이 참여함으로써 시계지침의 격과 친화를 높이기 위해서는 더없이 좋은 행사였다.

학생운동대역이 학생회의 주요 구성원이 되면서부터 학원자주화추진, 등록금투쟁등으로 다소 보수적인 교수와의 마찰과 일부 학생들의 부주의한 행동 때문에 불신과 반목의 벽이 높았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등반대회의 의의는 새삼 높게 평가할 만하다.

그러기에 요즘 학생회 '간부들이' 대중사업을 혁신하고자 '다정다정 학생회', '신민회' 학생회를 설립해왔던 바 정치부장, 학원자주화추진 등 제반 민주주의 투쟁 뿐만 아니라 학교의 발전과 교·학단 친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학생회 사원의 모범으로 인정할 일이다.

이와함께 교수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눈에 띄게 달라졌다. '체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 '공허한' 권위관을 내세우는 위치에서 한단계 내려와 학생들과 같이 생활하고 고민하는 자세는 '강의실 밖의 강의'라고 볼 수 있겠다. 현대사회처럼 가치관이 혼란되고 정서가 빈곤한 시대에 젊은 후학들과 함께 학문과 인성을 토론하는 교수들의 모습은 기쁘고 고무적이라 할 것이다. 또한 강의실 내에서도 교수와 학생이 같이 연구하고 토론하는 교수법을 채택하는 교수들이 늘어나는 점도 이번 행사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교수가 아직 권위주의적인 사색인을 갖고 학생들에 대해 기성세대

의 무리한 원리를 강요하며 대화를 막는 통제도 간간히 있었다. 이를 해결할 필요는 더도 없이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미 지난 몇해동안 사제지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크고 작은 행사들이 있어왔다. 교학간담회, 몇개 학과의 교·학 등반대회 등 이제 교수와 학생의 관계가 단지 스승과 제자로 엄격히 구분되고 틀림없이 사고와 가치관을 가졌던 관계는 아날을 증명하고 있다. 교수들간의 모임이나 행사, 학생들간의 대동제, 행사, 집회 등에서 교수와 학생이 같이 호흡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장이 더 많아지는 추세인 셈이다.

이번 행사는 전체 행사로서 처음이라 완벽할 정도만 참가했다 한다. 그러나 이미 홍보하고 준비하지 못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작은 숫자라고만 단정할 수는 없다. 등반대회에서 교수와 학생간에 쌓여진 대화와 친목이 학교안으로, 강의실로 물이와 지속된다면 앞으로 더 많은 성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부하건대 학생회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 어느 집단이라도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교수와 학생간에 더 큰 대동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데 주저하지 말고 보다 다양하고 충실한 공간과 모임, 행사를 만들기 위해 고민해주길 바란다.

직계는 교단에서, 크게는 전체 학교차원에서 이리 행사나 모임을 갖는 담임의 대학과 대학인들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다.

더욱이 일차고 의미있는 행사가 되려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자세도 요청된다. 주체적으로 행사의 의의와 목표를 심본 발휘하기 위해 고민해야겠다.

권력 우산속에 굴절된 언론

— 현시기 언론의 현상을 진단한다



1. 말한 언론(言論)에서 굴절된 언론으로

현대는 정보의 시대다. 정보를 만들어내는 기관보다 그 정보를 유통시키는 기관이 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대인 것이다. 또한 그렇기때문에 정보의 유통을 담당하는 각 언론기관은 권력과 어떤 식으로든 서로의 자발매입이 필요하고 어떻게 자기의 위치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 사회가 굴절된 사회인가, 열린사회인가가 결정된다. 이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언론기관들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 있어 언론의 현대사는 총구로 부터 나온 권력이 앞선 사회를 만들어버릴 때, 굴절된 형태로나마 부단히 닫힌 정보를 열려는 노력의 역사였다. 87년 6.29를 기점으로 언론사는 자신들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물론 여전히 정권의 물리적, 경제적 억압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 억압의 끝을 벗고자 노력하는 언론을 지지하고 지킬 수 있는 힘은 그 당시 민중들에게 전 내려졌다. 또한 언론인 스스로 그동안의 왜곡된 보도관행을 거부하고 새로운 언론민주화를 위한 한여 기자들의 노조 결성, 자발적인 취지 거부, 편집자살과 의 부본제 정파 등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발전을 하였다. 그러나 정체의 발전이 지닌가

2. 양비론에서 차별화로

지난 8월 28일은 장실 윤리관 공익 학도경기장에서 민자당 중앙집행위원회가 열렸다. 그 행사는 노태우대통령이 총재직을 사

는 "양비론"이라는 결정을 하고, 의 발언이 권력형 호자를 만들 것 결정 여부는 방송사의 편집권 문제라고 방송사를 두둔하고 나섰다. "우익" 방송사도 하여금 생방송을 할 간담의 뉴스가치를 만들었음과, 시청자들의 알고자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인가, 그 발언과 유독 민자당의 행사가 된인가. 타 당의 행사 또한 얼마든지 방영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보다는 정부의 강력한 권위(?)와 방송국 경영진의 공정성을 잃은 판단의 결과가 아닌가.

‘양비론’ ‘차별화’, 왜곡의 무기
조직적인 언론 감시 활동 필요

이런 상황은 비단 방송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량의 정보를 받아서 각 언론이 중요한 기사로 취급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신문은 민자당의 행사를 주요기사로 핵심기사로 다루었다. 또한 방송은 어쩌겠는가. 방송사는 행사가 열리는 5시를 3시 30분부터 3시 45분까지 그날 방송을 할지 못하는 각종 채록대회를 방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행사는 5시가 되기 전에 끝났고, 정규방송을 시작한 5시 30분은 자신들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물론 여전히 정권의 물리적, 경제적 억압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 억압의 끝을 벗고자 노력하는 언론을 지지하고 지킬 수 있는 힘은 그 당시 민중들에게 전 내려졌다. 또한 언론인 스스로 그동안의 왜곡된 보도관행을 거부하고 새로운 언론민주화를 위한 한여 기자들의 노조 결성, 자발적인 취지 거부, 편집자살과 의 부본제 정파 등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발전을 하였다. 그러나 정체의 발전이 지닌가

이중통신을 처음으로 한 김영삼 후보와 노태우대통령의 파워게임을 연일 보도하면서 그동안 그렇게도 잘 써오던 이른바 '양비론'은 슬며시 고개를 감추고 노태우 정권보다는 그래도 김영삼후보가 낫다는 이른바 '차별화' 주장을 강력하게 유포하고 있다. 또한 각 정당과 정파를 비교, 검토하는 지면은 찾아보기 힘들고 민자당이 정권을 잡기위해선 이리저리 하여야 한다는 기사만이 연일 지

3. 둘은 이에서 멀어지는 이로

지금까지 언론은 중요한 마한 가지로 일종의 신성한 영역이었다. 그안을 언론은 사회의 중요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고, 공익(公益)로서 그 존엄성을 인정하기때문이었다. 그러나 신성한 영역일수록 부패가 되면 그 정도도 심하고 자제적인 자정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언론 또한 예외는 아니다. 이렇게 되면 그 부패를 일깨우(깨)어야 할 이는 결국 언론체제를 점검하고 있는 수론자이다. 그리고 그 방방은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각종 언론의 감시활동과 제작보도와 편파보도를 일삼는 언론의 구조개혁, 시청자부담이 있다. 또한 학교내의 언론체제의 끊임없는 대변론 비판자립과 시민은 동자원의 전권자의 적극적인 후원과 자재의 언론체제를 통한 정당한 판단과 논조로 국민들의 삶이 못된 인식을 교정시켜야 할 것이

◆ 중간 소득계층 근로소득세 감면보도



단순한 홍보 선전에 그친 세법개정

대선을 석달 앞둔 최근 각 언론매체에는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정부속 사업들이 발표되고 있다.

지난 3일자 동아일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간지들은 1면 머릿기사로 월평균 급여가 1백만~2백만원인 중간소득계층의 근로소득세 감면보도를 92~93% 감소한다는 소식을 다루고 있다. 이는 월급으로 한달을 빠듯하게 생활해야 하는 중산층들이나 연세한 중산층에게만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노무도들 모시고 살거나 말뚝이를 하는 근로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한다.

그러나 새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그저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을 대통령 선거등을 앞둔 시절에서 여당의 요구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세금 감면의 폭은 넓어지고 각종 신상징 공제제도도 대부분이고 세제가 임시방편으로 운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세감면 조치는 경우도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 볼 때 긍정적인 모습이지만 하나 구조조정을 통한 자생력 강화라는 부분에서는 근본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먼 정책결정이라 말할 수 있다. 세율신분을 제외한 나머지 한국납세. 한꺼번에, 정형화된 것은 이번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를 '선거를 위한 선심성'이 아니냐 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특별소비세제 개편'이나 상속증여세제개편 등은 반영되지 않은 개편이라 밝히고 세율체제의 혼란을 예상하고 있다.

단순한 30% 감소라는 수치는 실질적으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한겨레신문에 실린 예로, 월급이 1백만 원인 근로자는 월 평균 70만원인 근로자는 월 평균 세금이 7천6백원에서 6천7백원으로 불과 11.8% 감소하는데 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인해 정부는 내년도 조세경감액이 근로소득세 부문에서 6천5백억원, 상속증여세 부문에서 5천5백억원 등 1조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한다. 이는 내년 예산 38조5천억원에서 3%가 초과하는 수치로 경기침체가 계속될지 재정문제가 어려움에 빠질수도 있다.

거의 모든 일간지들이 새 세법개정안 기사를 연안에 대한 단순보도, 비판 기사로만 처리해 아쉬움을 남겼다.

왜냐하면 현시기 당면한 경제문제와 우리 나라의 고질적인 병폐도 같이 심도있게 다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실행성 없는 생색내기 사업작업을 버리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로 접근해 가야 한다.

(이강숙 화)

POSCO세제시 5 2학기 개강편

우리 모두 다시 하나되어 ...

꿈에도 잊을수 없는 '88 서울 올림픽!
그리고 바로 며칠 전, '92 바르셀로나에서--
우리의 지력이 한순간 반짝빛나는 불빛이
아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은 열심히 싸웠고,
4천만 국민들도 여름밤을 지새우며
선수들과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올림픽의 영광은 민족 역량의 상징--
바르셀로나에서 얻은 또 한번의 자신감으로
우리 모두 다시 뛰어야 합니다.

포항제철은 다음세대의 행복과 다음세대의
변명을 약속하는 국민의 기업입니다.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Pohang Iron & Steel Co., Ltd.